



2022년 부산청년 청렴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22. 11.

해당 결과보고서는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임

【 목 차 】

제1장. 조사 개요	1
제2장. 조사결과 분석	4
1.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4
1-① 청렴에 대한 인식여부	4
1-② 청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부	5
1-③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및 시기	6
1-④ 사회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	8
2. 개인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	9
2-① 청렴의식 정도	9
2-② 청렴 6가지 덕목 실천 여부	10
2-③ 청렴하지 않은 상황 목격 시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정도 ..	11
2-④ 공익침해행위 경험 시 공익신고를 할 의향	12
3. 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13
3-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13
3-② 각 분야별 청렴수준의 인식	15
3-③ 청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7
3-④ 사회적 부패문제나 이슈 사례에 대한 인식	18
4. 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9
4-①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	19
4-② 반부패·청렴 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	21
제3장. 종합분석	22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부산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인식조사로 청년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
- 2021년 부산청년 청렴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청년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조사대상: 만 18~39세 부산 청년
- 조사기간: 2022. 9. 20.(화)~2022. 9. 26.(월), 7일간

3. 조사방법

- Web 기반 온라인 사회조사(online survey) 방식: 구글폼(Google Form) 활용
 - 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인스타 및 유관기관 홍보협조 요청

4. 자료처리 측정 및 분석

가. 자료 처리

- 최종 조사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수행하고, 통계검증이 불가능한 문항 제외과정을 거침
- 데이터의 분석 처리는 사회과학 전문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함

나. 통계분석

-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원자료(Raw-Data)의 분포를 파악하여 변수들의 빈도, 중심경향치, 분포도 등 변수의 개략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
- 교차분석 (Crosstabulation Analysis)
 -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거나 범주별 응답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분석방법

5. 조사내용

- 부산청년 청렴인식조사는 매년 말 부산청년정책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조사로, 2021년부터 2022까지 총 2회 실시되었음. 2022년 부산청년 청렴인식 설문문항에는 2-④, 3-④ 문항이 신규 문항으로 추가 되었고, 그 외에는 2021년 청렴인식조사 설문문항과 동일하게 구성됨

구분	세부사항	
응답자 특성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역	
부산청년 청렴 인식조사	1.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①청렴에 대한 인식 여부
		②청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부
		③청렴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및 시기
		④사회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
	2. 개인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	①청렴의식 정도
		②청렴 6가지 덕목 실천 여부
		③청렴하지 않은 상황 목격 시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정도
		④공익침해행위 경험 시 공익신고를 할 의향(신규)
	3. 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①우리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②각 분야별 청렴수준의 인식
		③청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④사회적 부패문제나 이슈 사례에 대한 인식(신규)
	4. 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①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
		②반부패·청렴 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

6.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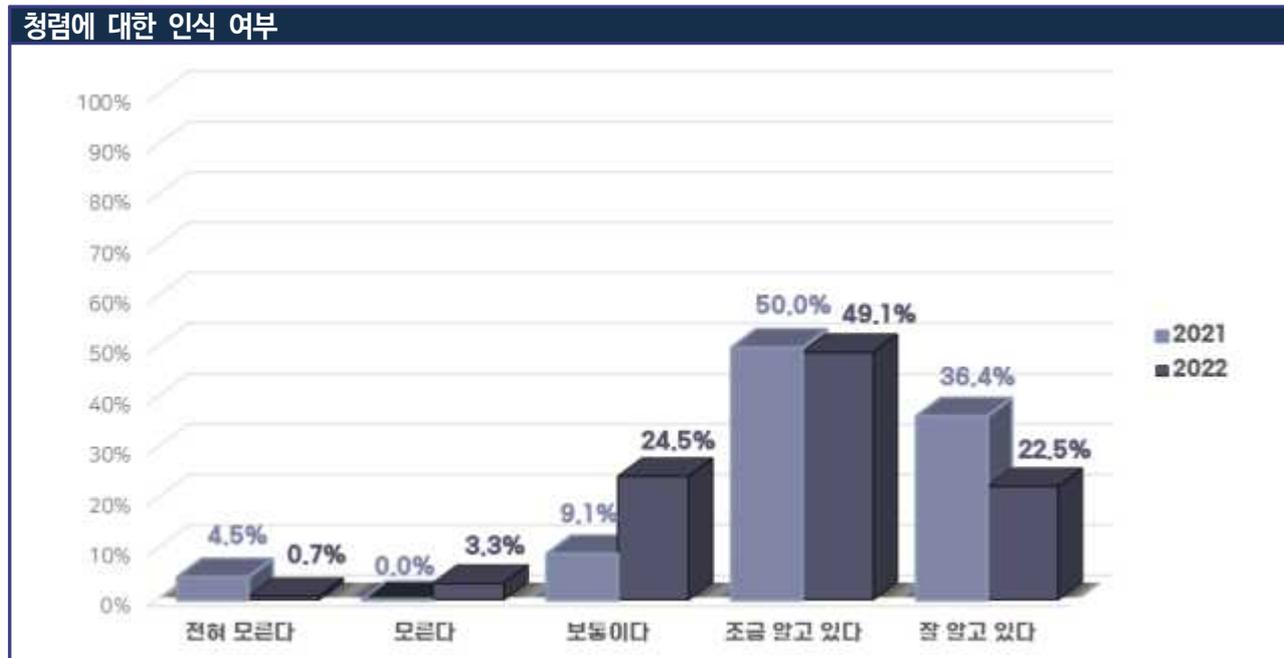
구분		인원(명)	비율(%)
전체		1,011	100.0
성별	남성	327	32.3
	여성	684	67.7
연령대	18세~22세	96	9.5
	23세~26세	272	26.9
	27세~30세	367	36.3
	31세~34세	187	18.5
	35세 이상	89	8.8
직업	대학(원)생	175	17.3
	직장인	580	57.4
	자영업	61	6.0
	프리랜서	58	5.7
	취업준비	98	9.7
	무직	37	3.7
	기타	2	0.2
거주지역	강서구	23	2.3
	금정구	43	4.3
	기장군	9	0.9
	남구	57	5.6
	동구	41	4.1
	동래구	69	6.8
	부산진구	267	26.4
	북구	53	5.2
	사상구	50	4.9
	사하구	62	6.1
	서구	44	4.4
	수영구	61	6.0
	연제구	45	4.5
	영도구	25	2.5
	중구	36	3.6
	해운대구	126	12.5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1-① 청렴에 대한 인식 여부

- 청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청렴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0.7%, ‘모른다’에 대한 응답이 3.3%, ‘보통이다’ 24.5%, ‘조금 알고 있다’ 49.1%, ‘잘 알고 있다’가 22.5%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의 청렴에 대한 인식조사 비교 결과 2022년 기준, 청렴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3.8%p 감소, ‘모른다’는 3.3%p 증가, ‘보통이다’는 15.4%p 증가, ‘조금 알고 있다’는 0.9%p 감소, ‘잘 알고 있다’는 13.9%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조금 알고 있다’ 혹은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86.4%(2021년), 71.6%(2022년)인 것으로 조사되어 2022년 청렴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청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

- ☑ ‘전혀 모른다’ 혹은 ‘모른다’로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렴에 대해 제대로 배운적이 없다’(응답: 16명), ‘청렴에 관심이 없어서’(응답: 12명), 그 외 ‘청렴(혹은) 부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응답: 7명), ‘필요하지 않다’(응답: 3명)

1-② 청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부

- 청렴이 우리 삶에 중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이 0.3%, ‘필요없다’는 응답이 0.6%, ‘보통이다’가 14.2%, ‘중요하다’가 48.9%, ‘매우 중요하다’가 36.0%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청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부 비교 결과 2022년 기준, ‘전혀 필요없다’는 의견이 4.2%p 감소, ‘필요없다’는 의견이 0.6%p증가, ‘보통이다’가 14.2%p 증가, ‘중요하다’가 21.6%p 증가, ‘매우 중요하다’가 3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청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요하다’ 혹은 ‘매우 중요하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95.5%(2021년), 84.9%(2022년)인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삶에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에는 68.2%로 나타난 반면, 2022년에는 36.0%로 나타나 응답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청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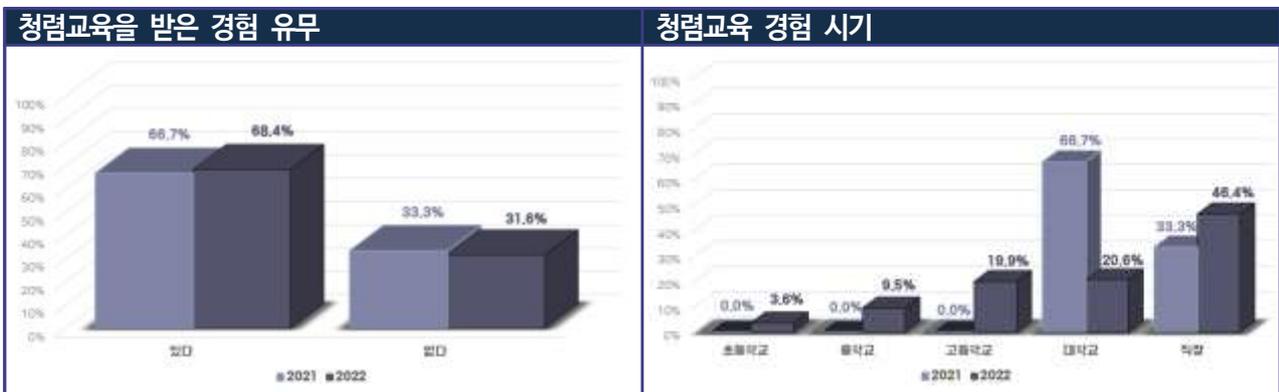


청렴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

- ☑ 2022년 청렴이 우리사회에 ‘전혀 필요없다’ 혹은 ‘필요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에 따른 보답이 없어서’, ‘의미 없음’, ‘뭔지 몰라서’ 등의 의견이 나타남. (응답: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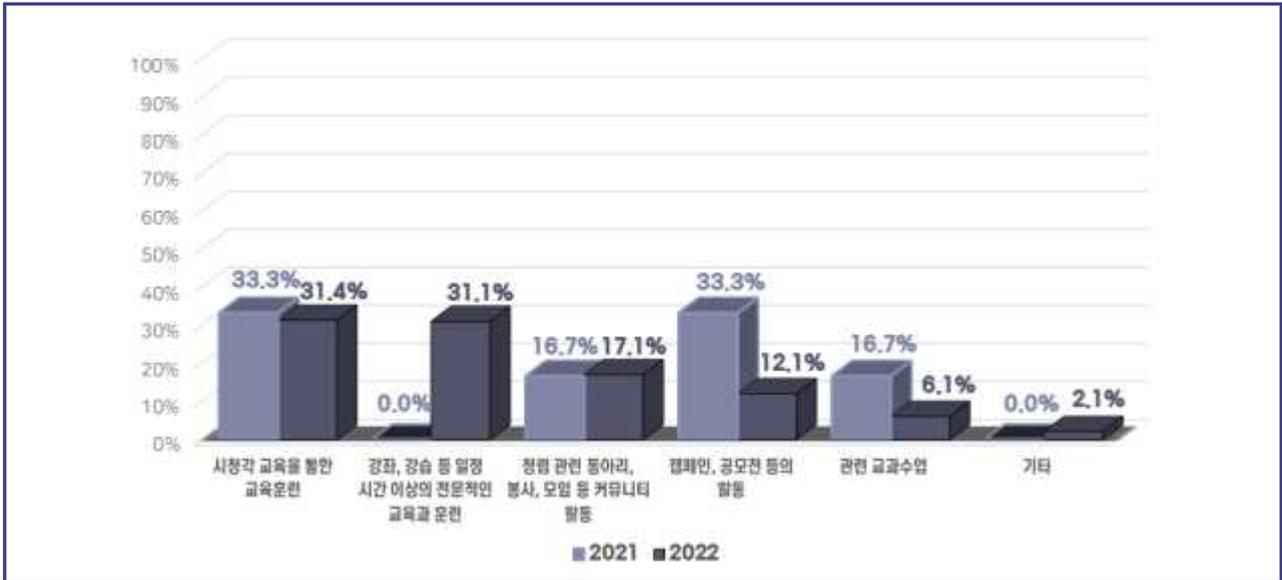
1-③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및 시기

-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68.4%,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31.6%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비교 결과 2022년 기준, ‘있다’에 대한 응답은 1.7%p 증가, ‘없다’에 대한 응답은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률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 청렴교육을 경험한 시기에 대한 응답은 ‘초등학교’가 3.6%, ‘중학교’가 9.5%, ‘고등학교’가 19.9%, ‘대학교’가 20.6%, ‘직장’이 46.4%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청렴교육을 경험한 시기에 대한 비교 결과, 2021년은 ‘대학교’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22년 ‘직장’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경험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 형태 *다중응답 빈도분석

- ☑ 청렴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하여 경험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시청각 교육을 통한 교육 훈련’에 대한 응답이 31.4%, ‘강좌, 강습 등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31.1%, ‘청렴 관련 동아리, 봉사,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 17.1%, ‘캠페인, 공모전 등의 활동’ 12.1%, ‘관련 교과 수업’이 6.1%, ‘기타’활동이 2.1%로 나타남
- ☑ 2021년에는 ‘시청각 교육을 통한 교육훈련’과 ‘캠페인, 공모전 등의 활동’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22년에는 ‘시청각 교육을 통한 교육훈련’이 31.4%, ‘강좌, 강습 등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31.1%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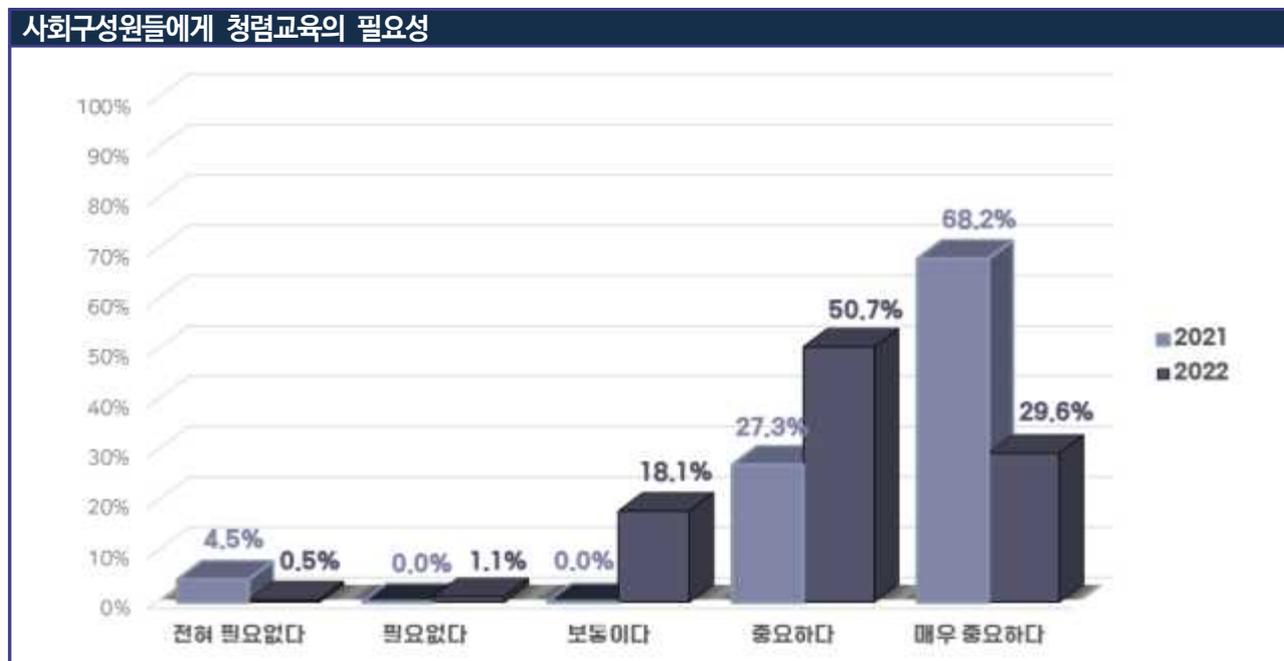
경험한 청렴 교육으로 인한 청렴인식에 긍정적 변화 유무

- ☑ 청렴교육을 경험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하여 경험한 청렴 교육으로 인해 청렴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1.6%, ‘효과가 없다’가 3.1%, ‘보통이다’ 36.4%, ‘효과가 있다’ 47.0%, ‘매우 효과가 있다’ 11.9%인 것으로 조사됨
- ☑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83.3%(2021년), 58.9%(2022년)으로 나타나 긍정적 변화로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1-④ 사회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

- 사회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 결과, ‘전혀 필요없다’가 0.5%, ‘필요없다’가 1.1%, ‘보통이다’가 18.1%, ‘중요하다’가 50.7%, ‘매우 중요하다’가 29.6%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사회구성원에 대한 청렴교육의 필요성 조사 비교 결과, ‘전혀 필요없다’가 4.0%p 감소, ‘필요없다’가 1.1%p 증가, ‘보통이다’가 18.1%p 증가, ‘중요하다’가 23.4%p 증가, ‘매우 중요하다’가 38.6%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사회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에는 68.2%, 2022년에는 29.6%로 응답률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청렴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 사회 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이 ‘전혀 필요없다’ 혹은 ‘필요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인의 선택이므로’, ‘관심 부족’, ‘도덕은 교육으로 교정되지 않기 때문’, ‘무관심’, ‘반발심만 오를 것 같아서’, ‘변화의 여지가 없음’, ‘의미없음’, ‘가정교육이 중요함’, ‘이미 대부분이 알고 있어서’, ‘조직문화와 구성원에 영향을 받을 뿐 교육으로 해결은 어려움’, ‘지키지 않는다’ 등. (응답: 16명)

2. 개인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

2-① 청렴의식 정도

- 개인의 청렴의식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낮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이 0.3%, ‘낮은 편이다’ 4.7%, ‘보통이다’ 37.1%, ‘높은 편이다’ 47.0%, ‘매우 높은 편이다’ 10.9%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개인의 청렴의식 정도에 대한 비교 결과 2022년 기준 ‘매우 낮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이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편이다’가 4.7%p 증가, ‘보통이다’가 14.4%p 증가, ‘높은 편이다’가 3.0%p 감소, ‘매우 높은 편이다’가 11.8%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개인의 청렴의식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2.7%(2021년), 57.9%(2022년)으로 나타나 개인이 느끼는 청렴의식 수준은 2021년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



2-② 청렴 6가지 덕목 실천 여부

- 해당 문항은 청렴의 6가지 덕목인 ‘공정, 책임, 약속, 절제, 정직, 배려’를 평소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청렴 6가지 덕목에 대하여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우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0.5%,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가 1.5%, ‘보통이다’가 28.8%, ‘실천하는 편이다’가 59.5%, ‘매우 실천하는 편이다’가 9.7%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청렴 6가지 덕목 실천 여부 비교 결과 ‘매우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은 4.0%p 감소,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은 1.5%p 증가, ‘보통이다’는 15.2%p 증가, ‘실천하는 편이다’가 8.7%p 감소, ‘매우 실천하는 편이다’가 3.9%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실천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천하는 편이다’, ‘매우 실천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은 각각 81.8%(2021년), 69.2%(2022년)인 것으로 확인됨

청렴 6가지 덕목 실천 여부



6가지 덕목 미실천 이유

- ☑ 6가지 덕목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 와 ‘매우 실천하지 않는 편이다’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에서도 부정부패가 넘치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서’, ‘익숙치 않아서’, ‘필요성을 못느낌’ 등 의미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응답: 19명)

2-③ 청렴하지 않은 상황 목격 시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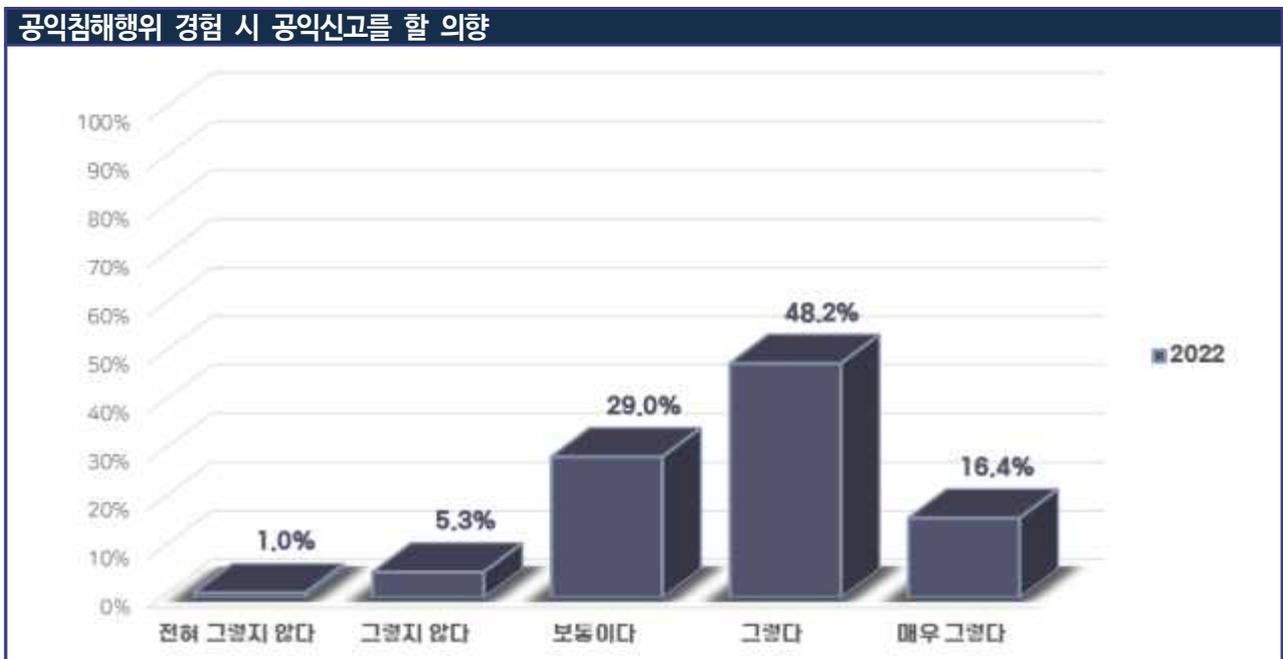
- 청렴하지 않은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편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1.0%, ‘낮은 편이다’가 9.2%, ‘보통이다’가 38.9%, ‘높은 편이다’가 41.5%, ‘매우 높은 편이다’가 9.4%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청렴하지 않은 상황 목격 시 행동하는 정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매우 낮은 편이다’에 대한 응답이 3.5%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낮은 편이다’가 4.4%p 감소, ‘보통이다’가 16.2%p 증가, ‘높은 편이다’가 4.0%p 감소, ‘매우 높은 편이다’가 4.2%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청렴하지 않은 상황 목격 시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은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9.1%(2021년), 50.9%(2022년)으로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청렴하지 않은 상황 목격 시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정도



2-④ 공익침해행위 경험 시 공익신고를 할 의향

- 해당 문항은 2022년 청렴인식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경험하였을 때 공익신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청년 의식 확인을 위한 설문 결과임
- 공익침해행위를 경험하였을 때 공익신고를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 ‘그렇지 않다’가 5.3%, ‘보통이다’가 29.0%, ‘그렇다’가 48.2%, ‘매우 그렇다’가 16.4%인 것으로 조사됨
- 응답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하였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64.6%로 나타나 공익침해행위를 경험할 시 공익신고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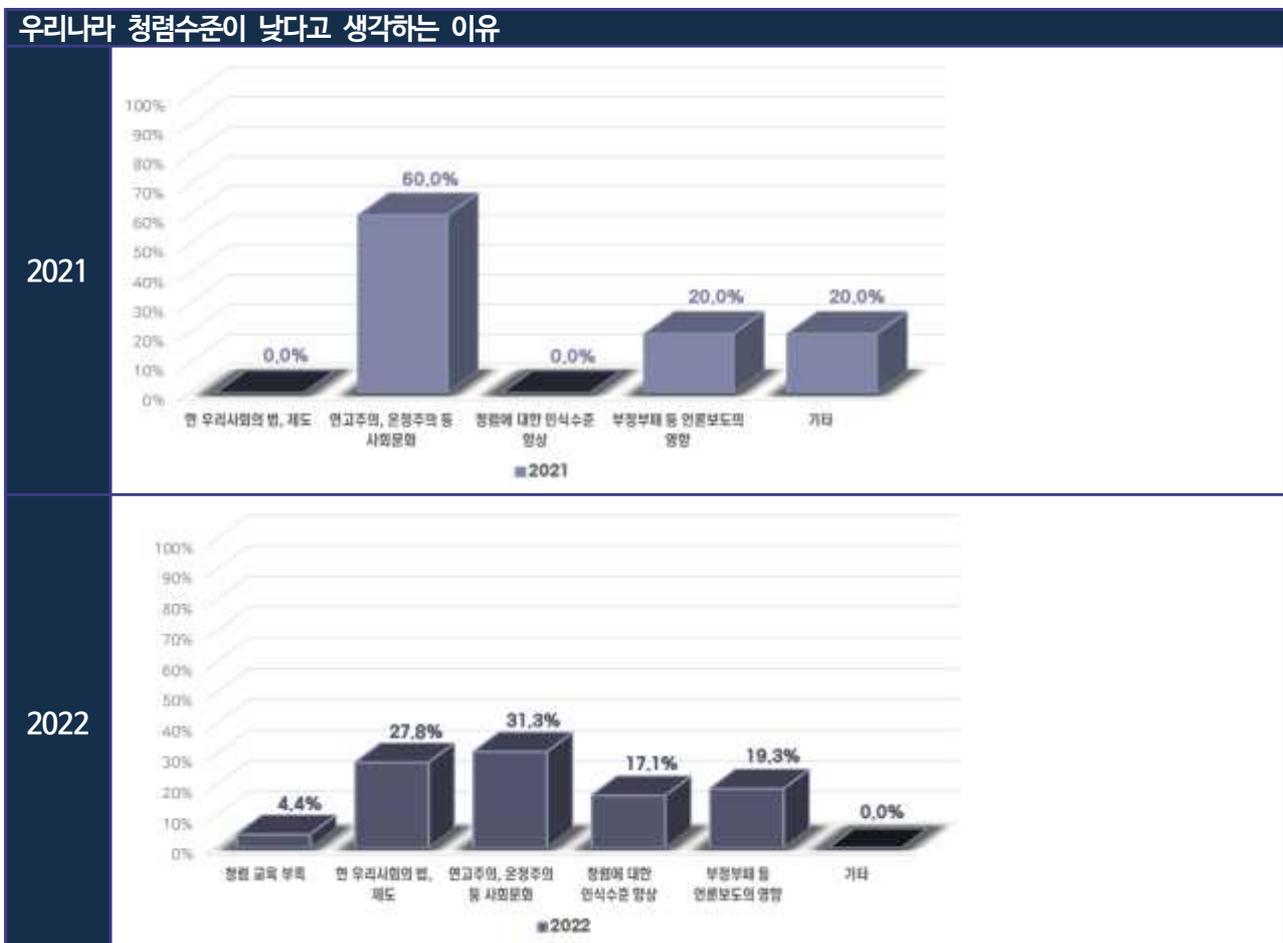
3. 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3-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청렴하지 않다’는 응답이 4.5%, ‘청렴하지 않다’가 26.1%, ‘보통이다’가 39.0%, ‘청렴하다’가 24.7%, ‘매우 청렴하다’가 4.5%로 나타남
- 2021년과 2022년 우리사회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 결과 ‘매우 청렴하지 않다’는 비율이 1.2%p 증가, ‘청렴하지 않다’가 7.9%p 증가, ‘보통이다’가 20.1%p 감소, ‘청렴하다’가 15.6%p 증가, ‘매우 청렴하다’가 4.6%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매우 청렴하지 않다’, ‘청렴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22.7%(2021년), 31.8%(2022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18.2%(2021년), 29.2%(2022년)로 나타나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즉, 2021년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59.1%로 50.0% 이상이 우리사회 청렴수준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본 반면 2022년에는 ‘매우 청렴하지 않다’, ‘청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31.8%, ‘보통이다’가 39.0%,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는 의견이 29.2%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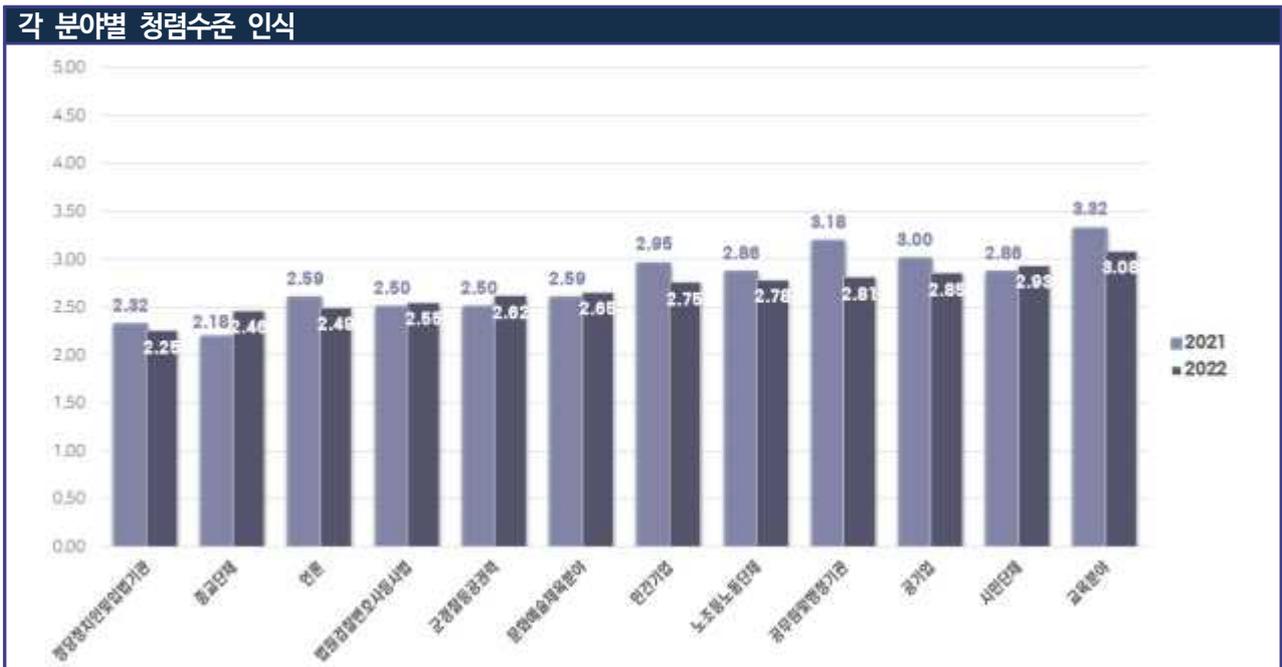


- ‘청렴하지 않다’, ‘매우 청렴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청렴 교육 부족’에 대한 응답이 4.4%, ‘현 우리사회의 법, 제도’가 27.8%,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사회문화’가 31.3%, ‘청렴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이 17.1%,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이 19.3%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우리사회의 청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사회문화’에 대한 응답이 60.0%,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20.0%, ‘기타’가 20.0%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사회문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2022년 조사 결과 청렴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음



3-② 각 분야별 청렴수준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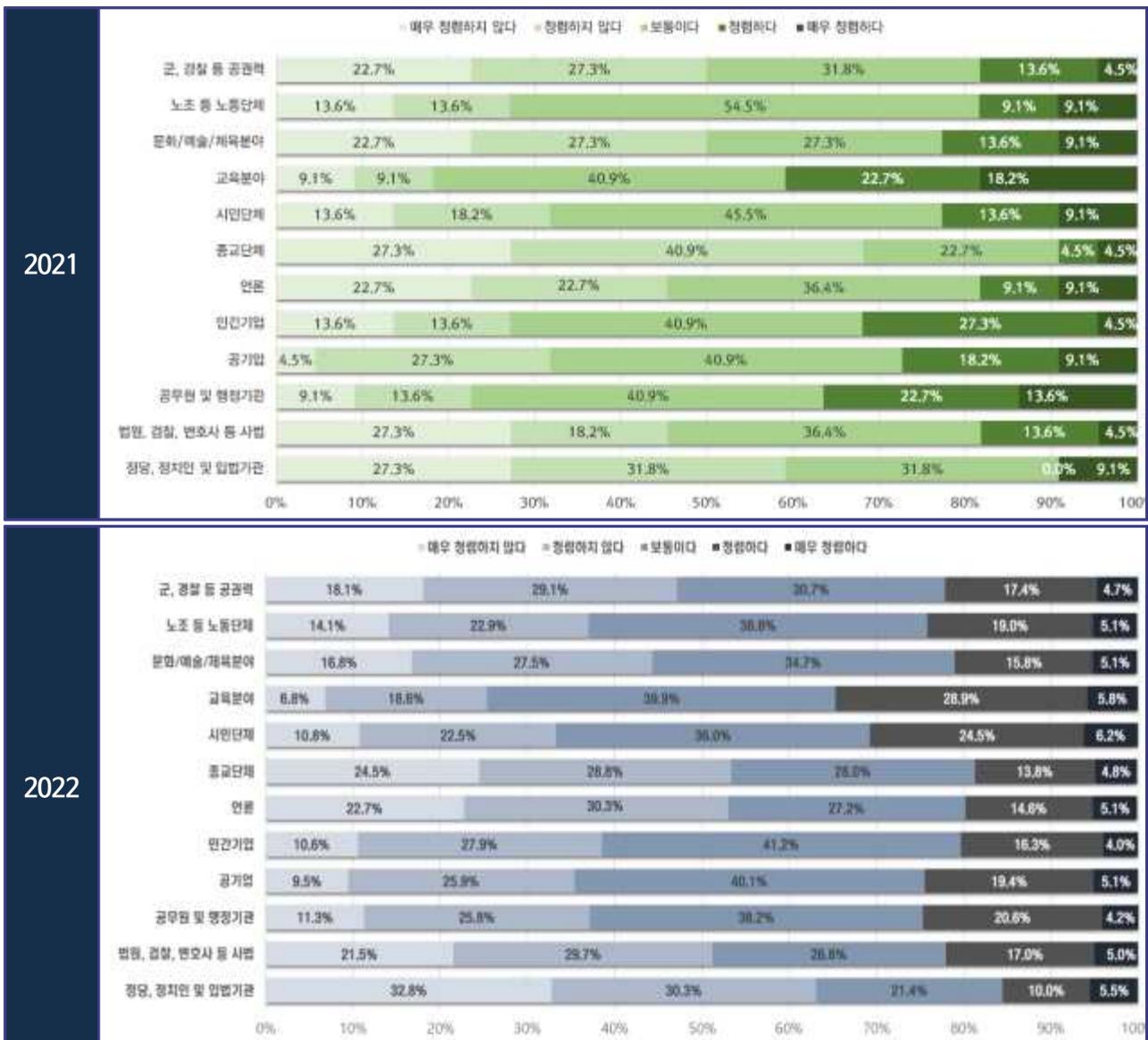
- 해당 문항은 ‘①정당, 정치인 및 입법기관 ②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 ③공무원 및 행정기관 ④공기업 ⑤민간기업 ⑥언론 ⑦종교단체 ⑧시민단체 ⑨교육분야 ⑩문화/예술/체육 분야 ⑪노조 등 노동단체 ⑫군, 경찰 등 공권력’ 분야에 대한 청렴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임
- 2022년 각 분야별 청렴수준의 인식에 대하여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정당, 정치인 및 입법기관’(2.25점), ‘종교단체’(2.46점), ‘언론’(2.49점),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2.55점), ‘군, 경찰 등 공권력’(2.62점), ‘문화/예술/체육 분야’(2.65점), ‘민간기업’(2.75점), ‘노조 등 노동단체’(2.78점), ‘공무원 및 행정기관’(2.81점), ‘공기업’(2.85점), ‘시민단체’(2.93점), ‘교육분야’(3.08점) 순으로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각 분야별 청렴수준 인식은 ‘종교단체’(2.18점), ‘정당, 정치인 및 입법기관’(2.32점),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2.50점), ‘군, 경찰 등 공권력’(2.50점), ‘문화/예술/체육 분야’(2.59점), ‘언론’(2.59점), ‘노조 등 노동단체’(2.86점), ‘시민단체’(2.86점), ‘민간기업’(2.95점), ‘공기업’(3.00점), ‘공무원 및 행정기관’(3.18점), ‘교육분야’(3.32점)로 조사되었음



- 2021년과 2022년 각 분야별 청렴수준 조사 결과, 12개 분야 중 ‘청렴하지 않다’와 ‘매우 청렴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분야는 ‘정당, 정치인 및 입법기관’이 59.1%(2021년), 63.1%(2022년), ‘종교단체’가 68.2%(2021년), 53.3%(2022년)로 나

타나 청년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청렴수준이 낮은 분야로 나타남

- 반면,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로 2021년에는 40.9%, 2022년에는 34.7%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각 분야별 청렴수준 결과를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12개 분야에 대하여 ‘매우 청렴하지 않다’, ‘청렴하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각각 39.8%(2021년), 43.2%(2022년)로 조사되었으며,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에 대한 응답은 22.7%(2021년), 23.2%(2022년)로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전반적으로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3-③ 청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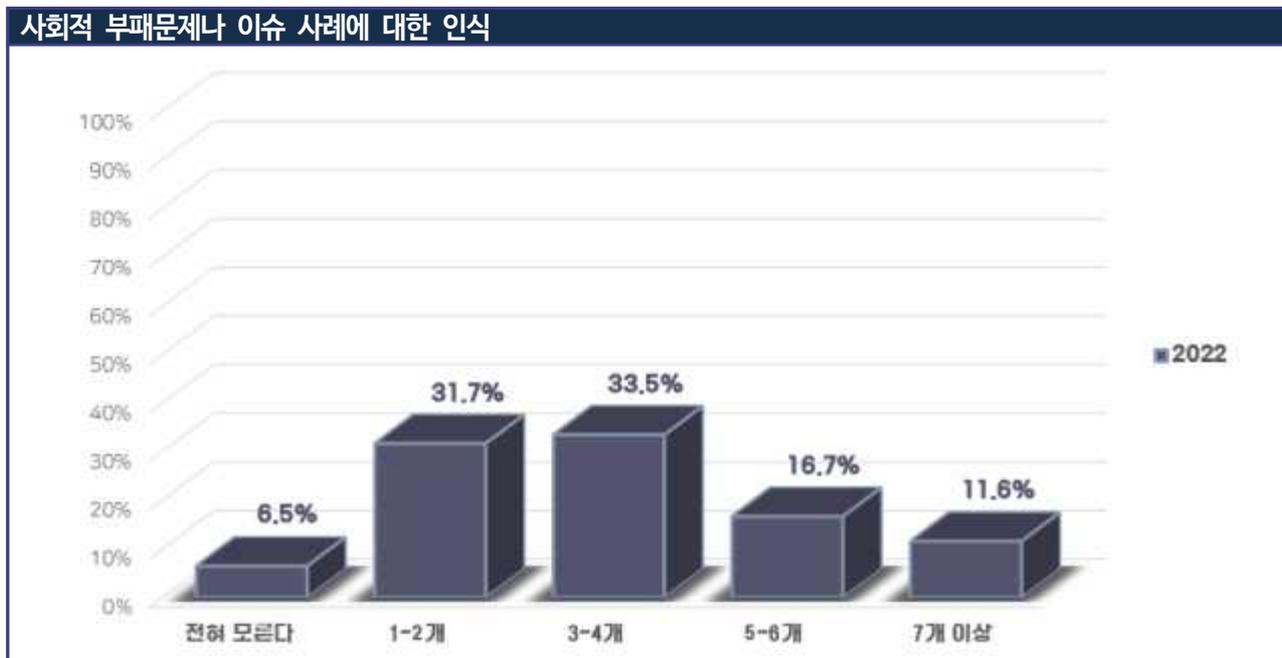
- 청렴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0.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2.7%, ‘그저 그렇다’가 15.2%, ‘영향을 미친다’가 53.6%, ‘매우 영향을 미친다’가 27.9%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청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매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2.7%p 증가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0.7%p 증가, ‘영향을 미친다’가 21.8%p 증가, ‘매우 영향을 미친다’가 31.2%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향을 미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90.9%(2021년), 81.5%(2022년)로 나타나 청렴이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함

청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인식



3-④ 사회적 부패문제나 이슈 사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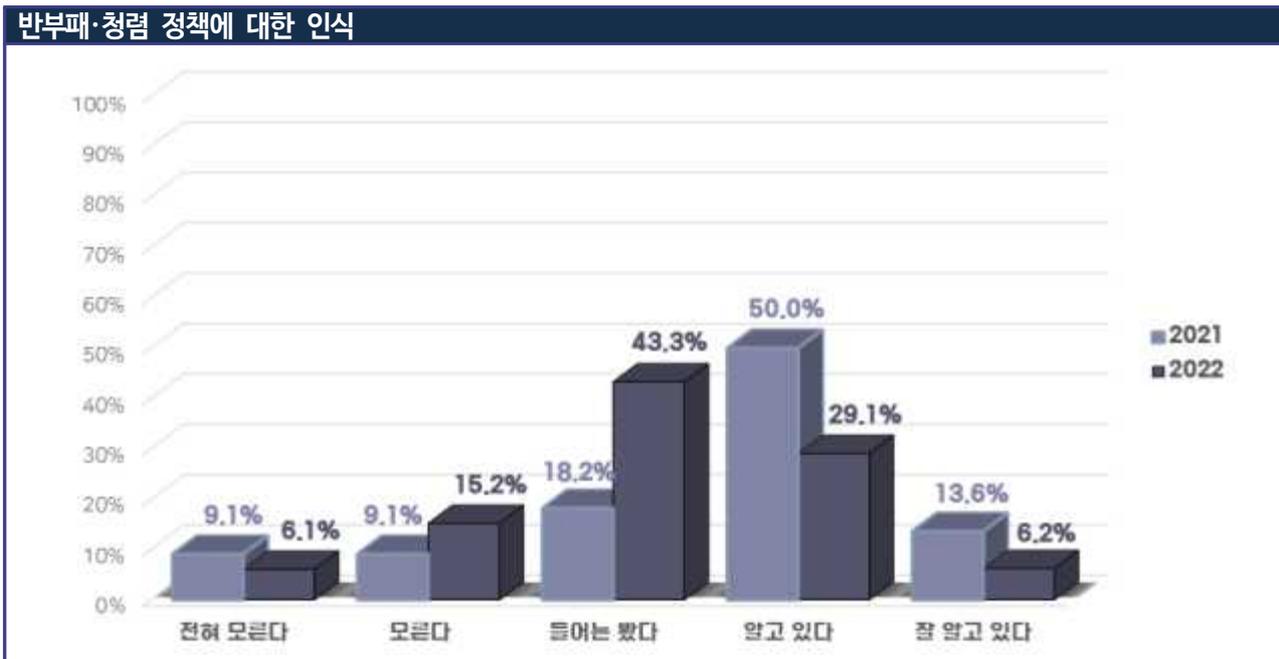
- 해당 문항은 2022년 청렴인식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으로 사회적 부패문제나 이슈 사례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임. 사회적 부패문제나 이슈사례로는 ‘은행 직원 A씨가 7년 간 문서 위조해 94억원을 횡령한 사건’, ‘부실공사 및 불법증축으로 인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공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 을 제시함
- 사회적 부패문제 및 이슈 사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은 6.5%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2개’로 응답한 비율은 31.7%, ‘3~4’개로 응답한 비율은 33.5%, ‘5~6개’에 대한 응답은 16.7%, ‘7개 이상’에 대한 응답은 11.6%인 것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부패문제나 이슈사례에 대하여 3~4개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1~2개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4. 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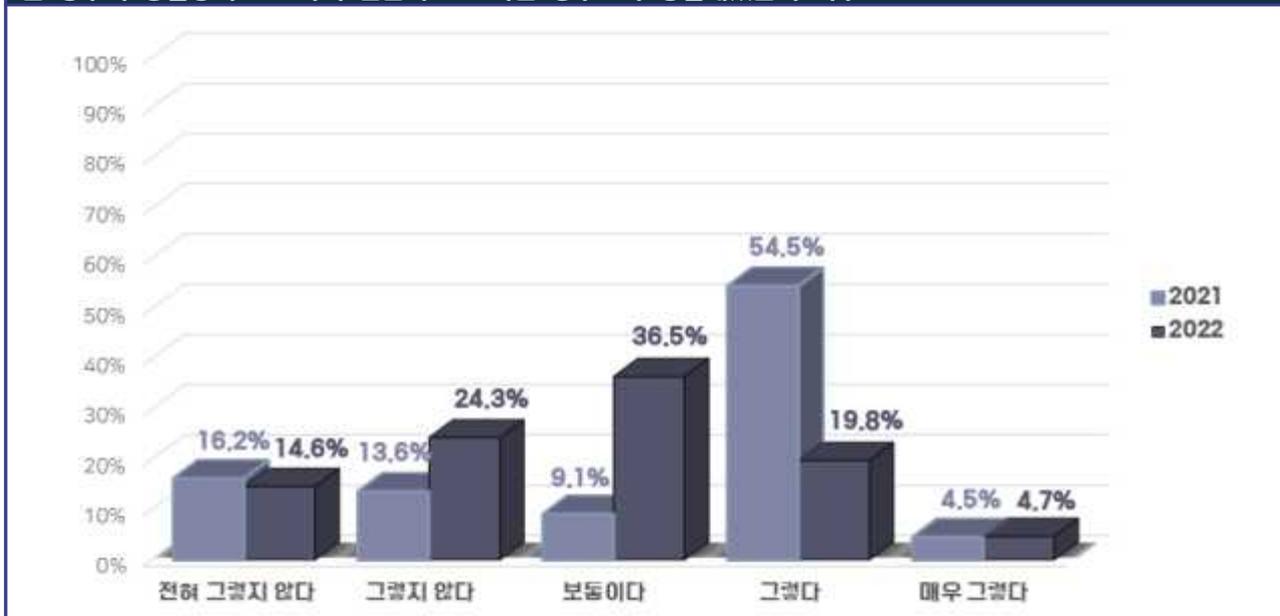
4-①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

- 반부패(청렴)정책의 사례는 경조사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채용비리·갑질·부당한 출장지원 등 불공정행위 적발·공표,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부정환수법 제정,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들 수 있음
-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1%, ‘모른다’가 15.2%, ‘들어는 봤다’가 43.3%, ‘알고 있다’가 29.1%, ‘잘 알고 있다’가 6.2% 인 것으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 인식 여부 비교 결과 2022년 기준 ‘전혀 모른다’에 대한 응답은 3.0%p 감소, ‘모른다’는 6.1%p 증가, ‘들어는 봤다’가 25.1%p 증가, ‘알고 있다’가 20.9%p 감소, ‘잘 알고 있다’가 7.4%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들어는 봤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각각 63.6%(2021년), 35.3%(2022년)으로 나타나 2021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 정부의 청렴 정책들로 인해 사회 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이 14.6%, ‘그렇지 않다’가 24.3%, ‘보통이다’가 36.5%, ‘그렇다’가 19.8%, ‘매우 그렇다’가 4.7%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현 정부의 청렴정책으로 사회 전반적 청렴해졌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7%p 증가, ‘보통이다’가 27.4%p 증가, ‘그렇다’가 34.7%p 감소, ‘매우 그렇다’가 0.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결과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29.8%(2021년), 38.9%(2022년)로 나타나 청렴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9.0%(2021년), 24.5%(2022년)로 나타나 청렴해졌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현 정부의 청렴정책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는지 여부



4-② 반부패·청렴 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

- 반부패·청렴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 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가 23.2%,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2.7%,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10.9%, ‘법, 제도의 개선’ 9.3%, ‘기업 활동의 투명성 제고’ 8.1%, ‘청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3.6% 순으로 조사됨
- 2021년과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비교한 결과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가 각각 31.8%(2021년), 32.1%(2022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도 시급한 현안 분야로 확인됨



제3장. 종합분석

1.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 19세~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산 청년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결과임
- 설문 응답자는 총 1,011명으로 남성 327명(32.3%), 여성 684명(67.7%)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18세~22세’ 96명(9.5%), ‘23~26세’ 272명(26.9%), ‘27~30세’ 367명(36.3%), ‘31~34세’ 187명(18.5%), ‘35세 이상’ 89명(8.8%)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직업은 ‘대학(원)생’이 175명(17.3%), ‘직장인’이 580명(57.4%), ‘자영업자’ 61명(6.0%), ‘프리랜서’ 58명(5.7%), ‘취업준비생’ 98명(9.7%), ‘무직’ 37명(3.7%), 기타 2명(0.2%)로 조사됨
-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부산진구’가 267명(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운대구’ 거주자가 126명(12.5%)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유의사항

- 본 2022년 부산청년 청렴인식조사 보고서는 2021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함
- 2021년 부산청년 청렴인식조사는 <제2회 2030 청년 청렴문화 페스티벌>에 참가한 전·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응답결과로 2022년 부산청년 청렴인식조사와는 표본 수에 차이가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설문응답자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2022년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1-③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문항은 2021년 <제2회 2030 청년 청렴문화 페스티벌> 사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전 참가자의 설문응답 결과와 2022년 참가자의 설문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함
 - ‘1-③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내 ‘경험한 청렴 교육으로 인한 청렴인식에 긍정적 변화 유무’는 2021년 <제2회 2030 청년 청렴문화 페스티벌> 사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 ‘1-④ <청렴문화 서포터즈>활동을 통해 청렴인식과 행동에 긍정적 변화 유무’와 동일한 문항으로 사후 참가자의 설문응답 결과와 2022년 참가자의 설문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함
 - 그 외 모든 문항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는 사후 설문응답자의 결과와 비교 분석함
 - 2022년 새로 생성된 문항은 별도로 분석함

3. 청년 청렴인식 조사 종합적 평가

1)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 2021년도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청년들이 청렴이 사회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청렴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청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 청렴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의 정도는 작년과 유사하게 60% 이상이 청렴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30% 이상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렴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청렴에 대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청년 비율은 84.9%였고, 청렴에 대해 ‘조금 혹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31.8%는 청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청렴교육은 주로 ‘대학교’ 또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프로그램의 형태는 주로 ‘시청각 교육’ 또는 ‘강좌, 강습 등 전문 교육 및 훈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청렴교육은 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청렴교육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청렴교육은 실질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질 필요가 있음

- 응답자의 80.3%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청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부분이 ‘의미가 없다’,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청렴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대부분 ‘의미가 없다’ 혹은 ‘뭔지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2) 개인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 청년 개인이 느끼는 청렴의식 수준은 작년에는 높은 편이었으나 올해는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렴 6가지 덕목인 ‘공정, 책임, 약속, 절제, 정직, 배려’는 평소 실천하고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청렴하지 않은 상황을 목격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익침해행위를 경험하였을 때 공익신고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개인의 청렴의식의 정도에 대하여 57.9%가 ‘높거나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청렴 6가지 덕목에 대하여는 응답자 중 69.2%가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50.9%가 청렴하지 않은 상황을 목격 시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64.6%가 공익침해행위 경험 시 공익신고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렴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3) 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하여 청년들은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렴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사회문화’와 ‘현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39.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청렴하지 않다’, ‘청렴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31.8%,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29.2%로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청렴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사회 문화’가 31.3%로 가장 높았고, ‘현 우리사회의 법, 제도’가 27.8%로 높게 나타났음
- 각 분야별로 청렴수준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교육분야를 제외한 입법기관, 종교단체, 언론, 사법기관, 공권력, 문화/예술/체육 분야, 민간기업, 노조 및 노동단체, 행정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전반적으로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 정치인 및 입법기관과 종교단체에 대하여 청렴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2개 분야별 청렴수준에 대하여 ‘청렴하지 않다’, ‘매우 청렴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분야는 ‘정당, 정치인 및 입법기관’이 63.1%, ‘종교단체’가 53.3%로 나타났으며, 작년에도 해당 2개 분야에 대하여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청년이 인식하기에 청렴은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적 부패문제나 이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의 81.5%가 청렴은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고, 사회적 부패문제나 사례에 대하여 응답자의 33.5%가 3~4개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1.7%가 1~2개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4) 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은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의 청렴 정책들로 인해 이전 정부보다 사회 전반이 청렴해졌다고 보지는 않고 있음
 -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하여 ‘들어는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며, ‘알고 있다’ 혹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 정부의 청렴 정책들로 인해 이전 정부보다 사회 전반이 청렴해졌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36.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반부패·청렴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 활동 강화’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의 32.1%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 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가 23.2%,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2.7%,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 기구 마련’ 10.9%, ‘법, 제도의 개선’ 9.3%,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8.1%, ‘청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3.6% 순으로 조사되었음